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김 성 수(Sung-Soo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초조대장경 내용의 분석 |
| 2. 鎭兵大藏經으로서의 가치와 의미 | 5. 결 론 |
| 3. 초조대장경 판본의 특징 | |

초 록

이 논문은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1) 초조대장경의 조조(雕造)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즉 '鎭兵大藏經: 거란과의 전쟁을 진압한 대장경'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증거와 발원지(發源地) 및 발원일(發願日)을 규명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2) 형태서지학적인 측면에서의 초조대장경 판본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초조대장경의 목판 판각에 있어서 중국 개보칙판대장경의 인쇄본을 단순하게 복각(復刻)한 것이 아닌, 이른바 독창적이고 탁월한 예술성(藝術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체계서지학적인 측면에서의 초조대장경의 편성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조대장경의 편성에는 중국 역대의 모든 불전목록을 빠짐없이 편입한 것으로 보아, 문종시대 이후의 초조대장경의 편성에는 개개 불전 또한 목록학적(目錄學的)인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대장경에 편입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포괄성(包括性)과 누적성(累積性)을 지닌 체계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were done: 1) by clarifying the place and date of praying for the engraving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its significance as "Daejanggyeong" produced to expel the Kitan was more clearly explained; 2) it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o provide evidence of the artistic and creative features of its engraving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aebo Tripitaka made in China; and 3) its structure was analyzed from a viewpoint of a systematic bibliography. It was found that since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contained all the earlier lists of Buddhistic scriptures in China (and individual scriptures were thoroughly examined and included into its content since the reign of King Munjong), it had a systematic bibliographical significance demonstrated by its comprehensive and cumulative nature.

키워드: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雕造)의 가치와 의미, 형태서지학, 체계서지학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Significance of the Engraving, Physical Bibliography, Systematic Bibliography

* 이 논문은 2010~2011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2년 2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2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63-288,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1.263]

1. 서론

2011년은 고려 초조대장경의 조조(雕造)를 발원(發願)한지 1,0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은 13세기 몽고의 침략으로 소실(燒失)되었고, 그 인본(印本)의 일부가 국내와 일본 <남선사(南禪寺)> 등에 흩어져 전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그 일부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초조대장경은 우리 문화사(文化史)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저(基底)적이고 궁극적인 해답의 제시 및 그 미래적 조명은 아직 우리에게 요원해 보인다.

왜냐하면, 초조대장경의 인본에 관한 조사는 2010년에 와서야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본만 그 형태서지(形態書誌)적인 조사가 매듭지어졌고, 초조대장경 조조의 발원지(發源地) 및 발원일(發願日)에 관한 규명도 작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는가 하면, 국내 전본(傳本) 및 여타의 일본 전래본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초조대장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초조대장경에 대한 형태서지학 및 체계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그 후 초조대장경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

다는 관점에서, 간략하나마 초조대장경 조조에 관한 형태서지학 및 체계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먼저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2. 鎭兵大藏經으로서의 가치와 의미

종래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雕造)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자료(史料)로써,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 유일(唯一)한 사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초조대장경은 1011년(顯宗 2)에 거란(契丹)의 침략을 물리치기위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피상적 개념만 중·고교 교과서로 배우고 또 그렇게 막연하나마 이해하였다. 이제 <대장각판군신기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 大藏刻板君臣祈告文

(丁酉: 고종24; 1237년 行)

국왕 諱[暲: 高宗]는 삼가 태자와 신하들과 함께 ... 기고(祈告)합니다! ...

그 초창의 단서(草創之端: 초조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연유(緣由))를 살펴보면, 옛날 ‘현종 2년(1011: 辛亥)’의 일이옵니다. 거란주(契丹主: 거란 왕)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침략하여,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의 군대는 송악성(松岳城)¹⁾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위없는 대원(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작성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1) ‘松岳城’은 곧 開京(開城)을 의미함.

생각컨대, 대장경도 하나이고(一也), 선후(先後)의 조판(雕鑤)도 하나이며(一也), 임금과 신하의 발원(發願)도 또한 똑같은데(一也), 어찌 유독 저 때의 거란병만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고는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제불 다친(諸佛多天)이 어느 정도 보살펴 주시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지성으로 발원하는바 ... 간곡히 기도하오니 부디 굵어 살피소서! (… 初創之端則昔顯宗二年 契丹主大舉兵來征 顯祖南行避難 且兵猶屯松岳城不退 於是乃與群臣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丹兵自退, 然則大藏經一也 先後雕鑤一也 君臣同願亦一也 何獨於彼時丹兵自退 而今達旦不爾耶 但在請佛多天 鑒之之何如耳 苟至誠所發 ... 伏惟炤鑒 云云).²⁾

라 하였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자, 남쪽으로 피난을 간 현종(顯宗) 왕은 신하들과 함께 1011년(현종 2)에 대장경을 조조(雕造: 刻板)하겠다는 맹서를 한 이후에야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조를 발원하는 고종

(高宗)과 그의 신하들은, '초조대장경 판본의 각성(刻成)을 맹세(誓: 發願)하자 비로소 거란의 군대가 물러갔음을 굳건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초조대장경 조조의 사례(史例)를 거울삼아, 재조대장경을 조조함으로써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기원하고 있음³⁾을 확인할 수 있다.⁴⁾

위와 같은 기록과 관련하여, 일본인 常盤大定은 초조대장경의 조성 배경에 대하여, '암묵(暗默)간에 북방 거란의 대장경 판각(刻藏)에 대항(拮抗: 對抗)하고, [고려는] 국력에 있어 [비록 거란에] 뒤지기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우월(優越)하다는 포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해석하고, 아울러 이규보의 위 기고문에 나타난 '외적(거란병) 격퇴의 기원은 미신적(迷信的) 분자가 혼입된 것(常盤大定 1913, 1164; 金潤坤 2002, 21. 재인용)'으로 폄하하고 있다.

또한 池內宏은 고려 [재조]대장경의 각성사업이 가지는 문화 방면의 업적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그 조성 배경인 '몽고 침략의 격퇴에 대한 기원을 고려 군신의 종교상 미신(迷信)으로 평가절하 내지 왜곡하기도 하였다(池內宏 1923, 567; 金潤坤 2002, 21. 재인용). 그리하여 그는 '이규보가 本文(기고문)을 쓴 高

2)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1237)年行), 『東國李相國集』 제25권 18-20(張), 雜著.

3)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생각컨대, 대장경도 하나이고, 선후의 조판도 마찬가지이며, 임금과 신하의 발원도 또한 똑같은데, 어찌 유독 저 때의 거란병만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고는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의 문장을 풀어보면, '생각컨대, 대장경도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은 대장경으로서 하나와 같이] 동일(同一: 하나)하고, 선후[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조판(組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며, 임금[현종과 고종]과 신하[현종의 신하와 고종의 신하]의 발원도 또한 똑같은데(一也), 어찌 유독 저 때의 거란병만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고의 군대 또한 물러가지 않겠습니까?'의 문장으로 해설할 수 있다. 따라서 고종과 그의 신하들은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이야말로 거란의 군대를 물러가게 한 근본적인 요인(要因)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의 인용문은 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의 경판(經板)을 새기고자(刻板)하는 기고문', 즉 하늘에 아뢰는(告) 일종의 '기도문(祈禱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기록된 연유(緣由)로 인하여, 현대적인 개념에서 기사(記事)의 원칙, 즉 육하원칙(六何原則) 중에서 '언제(when)'와 '어디서(where)'가 결여(缺如)되어 있다. 이른바 역사적 사료(史料)의 문장 속에 빈틈이 있는 셈이다.

宗24年(1237)은 顯宗2年(1011)과는 226년 후의 일로, 史料의 성질로 보아 신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종2년 이후 수차로 내침한 거란병들이 퇴환(退還)한 연대와는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本文(기고문)의 기사(記事)는 고종때에 몽고병(蒙古兵)들에게 소실(燒失)된 종래의 대장경판을 새로 조성(新雕)하여, 불력(佛力)을 빌어 병란(兵亂)을 면하기를 기원코자 하는, 그 당시의 실상(實狀)으로부터 과거를 추정코자 하는 망단(妄斷)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池內宏은,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현종은 그의 고비(考妣)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9년으로부터 12년에 걸쳐 개풍군(開豐郡)에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고 ... 그 동기[대장경 조조]를 현종이 고비(考妣)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현화사에 장경판(藏經板)을 시납(施納)코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였다(池內宏 1923, 307-362; 김두중 1974, 61, 재인용).

이와 같이 池內宏은,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에 관하여, 현종이 그의 어머니(考妣)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현화사에 장경판(藏經板)을 시납(施納)코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주장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011년(현종 2)의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한민족(韓民族) 문화말살정책'에 입각한 날조된 주장을 하였다.⁵⁾

그리하여 20세기 이후, 국내의 고려대장경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일본 어용학자가 날조한 주장을 각 학문별로 부분적으로 극복하기도 하였으나,⁶⁾ 아직도 완전한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강점기시대 일본인 학자들의 날조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를 수긍하는 경향'⁷⁾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조된 것'이라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史實)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인은, 첫째 위 인용문의 기록이 『고려사』 등 정사(正史)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고려 현종 당시 초조대장경의 각판(刻板)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원 장소(發源地) 및 날짜(發願日)에 대한 기록이 제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 두 가지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로 2010년에는 "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김성수 2010,

5) 池內宏의 위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기록을 왜곡(歪曲)하면서 억지로 날조(捏造)한 것이다. 왜냐하면, <玄化寺碑陰記>에 의하면, 실제로 현종이 현화사를 창건하면서 그의 부모를 위한 명복경(冥福經)으로 엄선한 불경은 『대반야경(600권)』·『화엄경』 3종·『금광명경』·『묘법연화경』을 목판으로 판각하여 이 절에 비치하였다'라고 비문(碑文)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종이 그의 부모를 위하여 판각한 명복경은 이 4종의 불경(佛經)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池內宏이 날조한 주장은 우리 민족문화의 탁월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 즉 '이른바 호랑이를 고양이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일제식민사관의 한민족 문화말살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려대장경의 연구에 관한 상세한 연구동향은 (김윤곤 2002, 24-3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7) 그리하여 근자에 들어, 국내의 학자 중에서도 '池內宏씨는 이규보의 글은 전혀 신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인용하면서 池內宏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초조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佛力を 빌어 거란(契丹)군을 물리치려는 목적으로 외적 격퇴를 위하여 조성했다는 종래의 견해를 탈피하여, 契丹(거란)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遼(契丹)와 事大交流를 하기 시작한 친선 평화시대에 造成되었다고 보았다. 그 동기는 현종이 考妣를 追薦하기 위하여 玄化寺를 창건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조성했다"(文暲鉉 1991, 489-491, 528-529)는 주장도 등장하게 되었다.

133-165)를 수행하였고, 둘째로 2011년에는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김성수 2011, 75-98)를 각각 수행한 바 있다. 이제 이들 연구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성(造成: 雕造)된 것’이라는 <대장각판관신기고문>의 내용의 진실성(眞實性)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사(正史)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관련 내용을 살살이 뒤지면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고려사』 제129권에 서 고려 재조대장경 판본을 작성하고자 발원하였던 장본인(張本人)인 고종이 <[최항(崔沆)에게 내리는] 조서(詔書)]>⁸⁾에서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회고하기를,

[高宗]41년(1254: 甲寅)에 … 明年[高宗42(1255)]에 [‘최항에게 내리는]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

“… 옛날에 주공 단(周公旦)과 소공 석(召公奭)이 주나라(周)를 도왔고,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한나라(漢)를 도왔는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진양공(晉陽候) 최이(崔怡)는 나의 선친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즉위한 이후 충성을 다하여 사직을 보위했고 보좌의 사명을 다했다. 신묘년(辛卯年: 1231)에 변방의 장수가 국토를 수비 못해서 몽고병(蒙古兵)이 침입했을 때에는 현명한 전략을 홀로 결정하고 못사람의 시비를 물리치면서 몸소 승여(乘輿)를 받들고 터를 잡

아 천도(遷都)하였다. 그리고 수년 사이에 궁궐과 관아를 모두 건설했으며, 국법을 진흥시켜 우리나라[高麗]를 다시금 바로잡히게 하였다. 또 역대로 전해 내려오던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초조대장경) 목판(木板)이 적병(狄兵)에 의하여 모두 불타 버리고, 나라에서는 사고가 많아서 다시 만들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최이는 도감(都監)을 따로 두고 자기 재산을 바쳐서 판각 조각을 거의 절반이나 완료하여 나라에 복을 주었으니 그 공적은 잊기 어렵다.

그 아들 시중(侍中) 최항(崔沆)은 가업(家業)을 이어 임금을 돕고 국난을 제어하였으며, 대장경에 대하여는 재물을 내놓고 역사를 감독해서 완성하고 봉납(奉納)의 식전을 거행함으로써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였다. 또 수도 요해지에 병선을 배치했고 또 강 밖에 궁궐을 건설하였으며 강화 도읍의 중성(中城)을 축성함으로써 견고한 요새를 더욱 견고히 하였으니 만대에 길이 그 힘을 입게 될 것이다. 황차 태묘는 초창이라 미비된 것이 많아서 실로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본의에 어긋나서 나의 마음이 불안했는데, 최항은 문객 박성자를 시켜서 태묘 건축을 감역했고 모든 비용을 다 자기 재산에서 지출하여 며칠 사이에 준공되니 그 제도가 적절하다. 이것은 실로 세상에 드문 큰 공이다. 내가 심히 가상히 여겨 유사(有司)에 명령해서 최항에게 부(府)를 세워 주고 식읍을 더 주며 그 부모에게 관작(官爵)을 더 추증하고 두 아들의 직품을 올려 주노라!”라고 하였다. 박성제 이하 공쟁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그러나 최항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⁹⁾

8) 즉, 재조대장경의 조조가 완료(1251)된 후 4년째 되던 해인 1255년(高宗 42)에, 위 <대장각판관신기고문>의 당사자였던 고종이 직접 말한, 이른바 ‘최항(崔沆)에게 내리는 조서(詔書)’임.

9) 『高麗史』 第129卷, 列傳第42, 反逆3, 崔忠獻[崔怡·崔沆·崔瑄]條, (高宗41年條). “[高宗]四十一年 … 明年王詔曰, 且奭相周蕭曹佐漢君臣相資古今一揆 晉陽公崔怡當聖考登極之日寡人即祚以來推誠衛社同德佐理越 辛卯 邊將

라고 한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고종(高宗)은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즉 ‘거란(契丹)과의 전쟁(兵: 전쟁 병)을 집압(鎭: 진압할 진)한 대장경’이라고 분명하게 지칭(指稱: 命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종은 ‘초조대장경 판각의 발원이야말로 거란의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게 한 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대장경을 ‘거란과의 전쟁(兵)을 진압(鎭)한 대장경’이라는 의미로 “鎭兵大藏經”이라고 지칭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작성한 <대장각판군신기고문> 내용이 역사적 사실(史實)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전거(典據)를 『고려사』의 기록에서 찾아내었다. 따라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기록된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내용은 역사적 진실(史實)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⁰⁾ 그리하여 ‘초조대장경(판)의 조조(彫造: 刻成) 동기는 거란군(契丹兵)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있었으며, 재조대장경의 조조 동기 또한 몽고군(蒙古兵)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있었음’을 규정(糾正)하였다(김성수 2010, 161).¹¹⁾

둘째,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초조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연유(緣由), 즉 그 ‘초창의 단서(草創之端)로 기록된 ‘옛날 현종2년(1011: 辛亥)의 일’로써, 거란주(契丹主: 거

란 왕)가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침략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의 군대는 송악성(松岳城)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고,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위없는 대원(無上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각성할 것을 맹서(誓)한 후에야 비로소 거란군사가 스스로 물러갔다’라는 사항에서, 1011년 당시 초조대장경의 각판(刻板)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원 장소(發源地) 및 날자(發願日)를 규명(糾明)하기 위하여, 거란의 군대가 고려를 침략하여 우리의 국토 안에서 전쟁을 치루는 기간 동안, 즉 현종이 남쪽으로 몽진(蒙塵)하는 시점인 1010년 12월 하순부터 다시 개경으로 환궁(還宮)하는 1011년 2월 중순 사이의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거란의 군사를 물리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혹은 하늘(神明)에 기도하는 제사(報祠)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있는 사항 등을 정사(正史)의 기록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추적·검색하고, 검색된 결과의 사항들과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 내용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김성수 2011, 80). 그리하여 ‘거란의 고려 침략상황 및 현종의 몽진(蒙塵) 여정,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지(發源地)와 발원일(發願日)’ 등을 고구(考究)하면서 ‘1011년 청주 행궁(淸州行宮)에서 연등회(燃燈會)¹²⁾

失守蒙兵闖入神謀獨決截斷群議躬奉乘輿卜地遷都不數年間宮闕官廡悉皆營構憲章復振再造三韓且歷代所傳鎭兵大藏經板盡爲狄兵所焚國家多故未暇重新別立都監傾納私財彫板幾半福利邦家功業難忘 嗣子侍中沆適追家業匡君制難大藏經板施財督役告成慶讚中外受福 ….” (출처: www.krpia.co.kr).

10) 위와 같이 13세기 당시에는 이미 11세기에 조성되었던 초조대장경과 관련한 많은 기록들이 왕실(王室)이나 국가의 문서고(文書庫)에 잘 보존되어 충분히 열람할 수 있었거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기록정보들을 입수하거나 들었을 것임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은 일차사료(一次史料: 正史)에 비견(比肩)한다.

11) 이로써 池內宏이 주장한 바 ‘현종은 그의 어머니(考妣)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초조대장경을 조조하고, 이를 현화사에 시납(施納: 獻納)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하게 날조(捏造)된 주장임을 파악할 수 있다.

를 개최한 사항을 주목하고, 이를 논술한 결과,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 발원의 장소는 청주 행궁(淸州行宮)이며, 그 구체적인 일자는 1011년(顯宗 2) 2월 15일이었음'을 입증(立證)한 바 있다(김성수 2011, 80-93).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성된 대장경, 즉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 하겠다. 또한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지(發源地)는 청주 행궁(淸州行宮)이었으며, 그 발원 일자는 1011년 2월 15일(陰曆)임을 근자에 규명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요컨대,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鎭兵大藏經(전쟁(兵)을 진압(鎭)하는 대장경: 초조대장경)의 각판(刻板)'이라는 기치(旗幟)를 내세움으로써 민족적(民族的) 단결의 구심점(求心點)으로 삼고, 동시에 문화적 자존(自尊)의식을 표출시킴으로써 11세기

고려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조대장경은 이와 같이 '외침(外侵)의 극복'에 대한 표상이 됨으로써 13세기의 몽고의 침략 때에도 재조대장경을 판각하는 사례(史例)가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의 대장경은 모두 전쟁을 극복하면서 문화적 자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염원에서 조조된 세계적인 기록유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초조대장경 판본의 특징

고려 초조대장경 인본(印本)에 있어서 물리적 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초조본은 한지(韓紙: 楮紙) 바탕의 종이에 목판인쇄본의 권자본(卷子本: 두루마리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즉 이것은 초조대장경의 각 목판에 '23행 14자(字)'¹⁴⁾씩 새겨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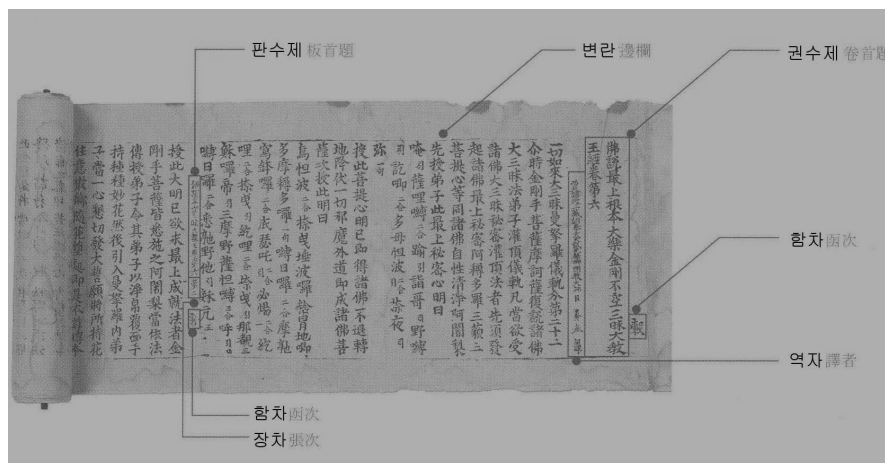
12) 〈연등회(燃燈會)〉는 신라 진흥왕대에 〈팔관회(八關會)〉와 더불어 국가적인 행사로 시작되어, 주로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바치는 공양 중 '등공양(燈供養)'이 있는데, 이는 부처 앞에 등(燈)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바르게 하여 부처의 덕을 찬양하고,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연등회〉의 종류에는 '상원(上元) 연등'과 '초파일(初八日) 연등'이 있다. 상원연등은 매년 정월 보름날에 왕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틀 동안 등불을 밝혀 다과를 베풀고, 음악과 춤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부처를 즐겁게 하여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태평을 기원(祈願)하는 행사이다. 상원연등은 불교적인 의미와 함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년기원제와 결합된 행사이다. 신라시대 정월 15일에 행해진 연등은 바람과 비의 신(神)인 용신(龍神)과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별자리(天文太一星宿)에 드리던 풍년기원제와 불교의 등(燈)공양이 결합되어 행해진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등회는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의해 거국적인 행사로 행해졌다. 이후 성종 때 유학자들의 강한 반대로 일시 폐지했다가, 1010년(현종 1) 윤2월 보름에 부활되었다. 이같이 현종은 왕위(王位)에 즉위하면서 곧바로 〈연등회〉를 부활시킨 것은, 고려 태조(太祖) 왕건의 건국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종은 거란의 침략으로 인하여 몽진(蒙塵)하고 있는 와중(渦中)에서도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개최한 것은, 거란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國家)의 안녕과 왕실의 태평을 다시 복원하려는 강력한 염원(念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개경(開京)으로 환궁(還宮)하는 데 대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축적하고 국민들의 민심(民心)을 수습(收拾)하면서, 국가적인 단결과 결속(結束)을 위한 상징으로써의 〈연등회〉를 청주(淸州)에서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주(淸州)는 삼남(三南: 현재의 忠淸·全羅·慶尙)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 충청도의 연기·공주·천안·충주,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상주·문경·선산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경기도로 통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현종 당시 몽진 중에 삼남(三南)에서 〈연등회〉의 개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점지(點指)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쇄한 종이를 차례로 이어(連結) 붙여서 제작한 두루마리 책이다.

2)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제1행부터 왼쪽으로 내용이 시작되면서, 제1행에는 '권수제(卷首題)' 사항으로 '경명(經典名)'¹⁵⁾과 '권차(卷次)'¹⁶⁾가 기록되고, 제1행의 하단(下段)에 천자문(千字文) 순서(順)의 '함차(函次)'¹⁷⁾가 기록된다.

그 다음 행인 두 번째 행에는 '역자(譯者)' 사항으로, 번역자가 활동하던 국가명(國家名)¹⁸⁾과 해당승려의 직위(職位)¹⁹⁾ 및 법명(法名)²⁰⁾ 등이 소자(小字)로 기록된 후, 맨 아래에 '譯'이라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각 경전의 세부제목(細部題目)이 기입(記入)되고,²¹⁾ 그 다음의 행에서부터 비로소 본문이 시작되는 형식으로 그 인쇄면의 첫 장(張)이 끝난다.²²⁾

<사진 1> 고려 초조대장경 卷首題 印本の 세부 명칭²³⁾



13) 국내에 전존하는 대부분의 초조대장경은 권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본 남선사(南禪寺)에 보존되어 있는 초조대장경 '521種, 1826卷, 1712冊'(김기화, 이재영, 南禪寺 所藏 初雕大藏經의 形態의 特徵, 『古印刷文化』, 제17집 (2010.6.): 91.)은 모두 '1면(面) 5행(行)씩' 절첩(折帖) 형태로 개장(改裝)됨으로써 절첩장(折帖裝: 折帖本)의 형태로 변모(變貌)된 모습을 보인다.

14) 다만 첫 張만 '22行 14字'이다.

15) <사진 2>에서 오른쪽 제1행의 '大方廣佛華嚴經'이 經名인.

16) <사진 2>에서 오른쪽 제1행에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經名 아래에 '卷第七十五'이라고 한 부분이 卷次인.

17) <사진 2>에서 오른쪽 제1행에 하단에 '首'라 기록된 것이 函次名인.

18) <사진 2>에서 오른쪽 제2행에 '唐'이라 기록되어 있음.

19) <사진 2>에서 오른쪽 제2행에 '于蘭三藏'이라 기록되어 있음.

20) <사진 2>에서 오른쪽 제2행에 '實叉難陀'라 기록되어 있음.

21) <사진 2>에서 오른쪽 제3행에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六'이라 기록된 부분을 일컬음.

22) 권자본에서는 첫째 인쇄면과 둘째 인쇄면을 풀(接合劑)로써 접합(接合)하는 형식을 취한다.

23) 사진 출처: 호림박물관,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서울: 호림박물관, 2011), 260.

위 위의 사진에서 오른쪽 제1행의 卷首題가 일반적으로 짧은 경향을 보인다. 이 때 대부분의 函次名은 제1행의 하단(下段)에 위치하고 있음.

〈사진 2〉 초조대장경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五(首函)²⁴⁾

3) 〈사진 1〉의 ‘판수제’ 부분부터 그 왼쪽 면이 바로 두 번째 인쇄면의 시작된다. 이러한 제2면의 시작되는 장(張) 오른쪽 가장자리(段)에 ‘판수제(板首題), 함자(函次), 장차(張次)’ 사항이 소자(小字)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조본은 권자본이다. 따라서 이 판수제 부분의 종이 오른쪽과 그 앞의 인쇄면(張)의 끝부분이 서로 겹쳐지면서 풀(接合劑)로 이어 붙여서 권자본의 종이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제1면과 제2면의 종이가 서로 겹쳐질 때 판수제 부분이 아랫면에 겹쳐지기 때문에 그 글자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왼쪽의 반쪽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사진 1〉에서 ‘판수제’ 부분부터 왼쪽으로 제2면의 인쇄면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 판수제 부분에서, 초조본에서 장차(張次)는 ‘丈’·‘幅’·‘張’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丈’이 많이 쓰이고 있다(김기화, 이재영 2010, 109). 이것이 또한 초조대장경의 형태적 특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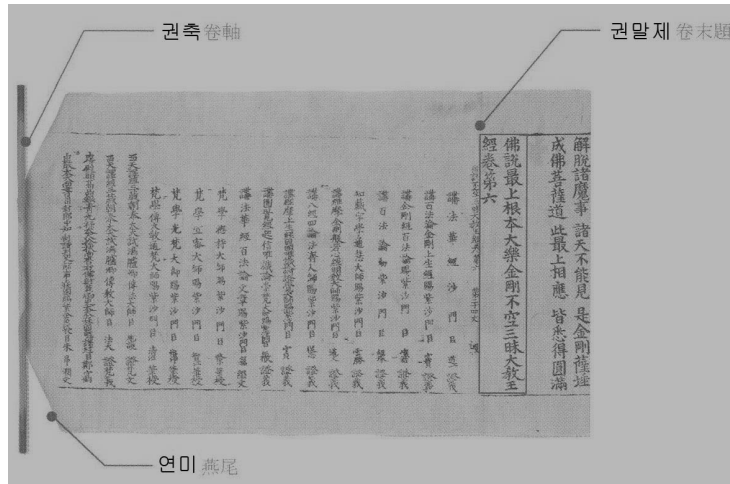
4) 〈사진 1〉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초조대장경의 권자본은, 〈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하(上下)에 붉은 칠을 한 권축(卷軸)에 ‘연미(燕尾)’ 형태의 종이에 풀칠하여 연미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감싸서 권자본을 장책(粧冊)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권자본의 끝 부분에는 권말(卷末)사항이 나타나게 된다.

〈사진 4〉의 아래 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재조대장경과 개보장 등의 대장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말제(卷末題) 사항 다음의 왼쪽 부분에 ‘간기(刊記)’ 사항이 새겨져 있다.²⁵⁾ 그런데 〈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초조대장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간기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아마도 이것은 고려 현종(顯宗) 당시에 초조대장경 각판(刻板)의 1차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이후 보유판(補遺板)을 계속 판각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염두에 둔 이유에서 연유(緣由)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수 20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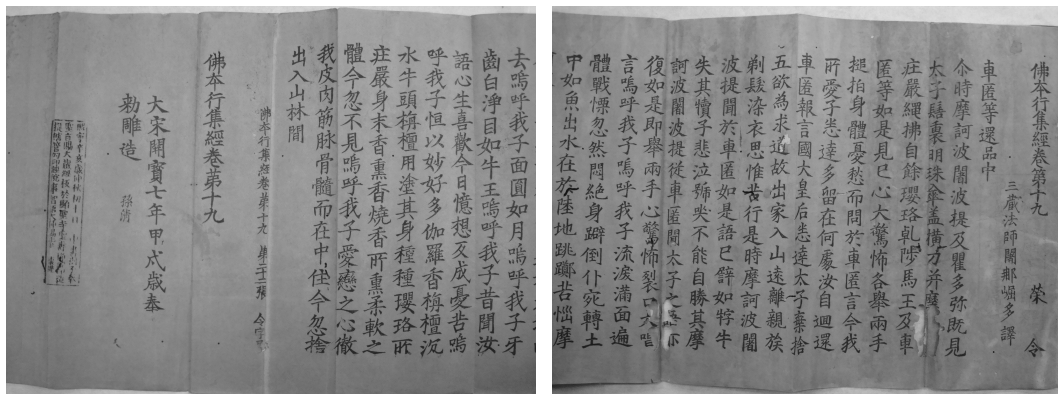
24) 사진 출처: (호림박물관 2011, 31).

25) 〈사진 4〉의 아래 사진에서 ‘大宋開寶七年甲戌歲奉勅雕造’라고 표기한 부분을 일컫는다.

〈사진 3〉 고려 초조대장경 卷末題(卷尾題) 印本の 세부 명칭²⁶⁾



〈사진 4〉 日本 南禪寺 所藏 開寶藏「佛本行集經」卷第十九. 左: 卷首. 右: 卷末 부분²⁷⁾



5) 초조본에서 인쇄면 한 장(張)의 크기는 보통 '세로(紙高)28.2cm×가로(紙幅)51.9~53.8cm' 정도의 한지(韓紙: 楮紙) 종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 판면(板面)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匡高) 21.1~23.0cm' 정도 크기의 상하 변란(上下

邊欄)이 인쇄되어 있다(김기화, 이재영, 107-108). 초조본에는, 종다수(從多數)의 초조본의 경우, 이러한 '상하 변란'이 새겨져 인쇄되어 있음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 초조대장경의 지

26) 사진 출처: (호림박물관 2011, 260).

위 위의 사진에서 오른쪽 제1행의 卷首題가 일반적으로 짧은 경향을 보인다. 이 때 대부분의 函次名은 제1행의 하단(下段)에 위치하고 있음.

27) 사진: 2010년 1월 <남선사>에서 필자 촬영.

본(底本)이라 할 수 있는 개보척판대장경(開寶勅板大藏經)의 인본(印本: 이하 '開寶藏'이라 약칭함)에는 상하의 변란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조본 등 고려대장경에는 그 판면에 계선(界線)을 아예 새기지 않은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

6)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은 각 목판 한 장에 '23행 14자(字)'씩 새겨 나가는 판각술(板刻術)은 대단히 정교하고 우수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조대장경이나 개보장에 비하여 그 판각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 2>에서 보는 바의 고려 초조대장경 『화엄경』(高麗 初雕本)과 <사진 4>에서 보는 바의 개보척판대장경 중 황마지(黃麻紙)에 인쇄된 『불본행집경』(北宋本)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개보장은 수경강건(瘦硬剛健)²⁸⁾한 운필(運筆)의 서법(書法)이라면, 초조본은 후경방정(厚勁方正)²⁹⁾하게 운필된 구양순(歐陽詢) 계통의 서법'(천혜봉 2011, 243)이라는 점이다. 즉 개보장은 그 판각에서 각 글자의 획(劃)이 비교적 가늘고 야무진 느낌을 주지만, 반면에 우리의 초조본은 인쇄된 각 글자의 획이 비교적 두텁고 굳세면서도 반듯한 느낌을 주어서 그 필획(筆劃)에서의 박력(迫力)있는 힘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아름다운 미적

(美的) 감각이 충만(充滿)한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초조대장경은 북송(北宋)에서 고려로 수입된 개보척판대장경의 인쇄본을 단순하게 번각(飜刻)한 것이 아님을 여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³⁰⁾

7)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본의 지질(紙質)은 우리나라 닥종이(楮紙)의 한·두 종류가 함께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두 종류 이상의 지질을 같이 사용한 경전도 있다.³¹⁾ 특히 남선사에 소장되어 있는 초조본 '521種 1,825卷 1,714冊' 중에서 『瑜伽師地論』 卷8의 바탕종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필(角筆)로 11세기 한국(韓國)의 점토(點吐)가 기입(記入)되어 있다'³²⁾는 점이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南禪寺本 『四分律藏』 卷40은 구절선 표시와 11세기 초의 문자토(文字吐)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이다. 11세기 초에 각필(角筆)로 우리(한국) 고유의 구결문자(口訣文字)를 기입한 석독구결(釋讀口訣) 자료 하나를 더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정재영 2010, 365-366). 따라서 이러한 초조본들은 초조대장경이 판각되고 인쇄된 후 곧바로 읽혀졌다(讀書)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역사적 가치는 무척 크다 하겠다(정재영 2010, 401).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정재영 교수는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 인본들은 1390년대, 즉

28) 글씨가 잘고 야무지며 강건(剛健: 굳세고 튼튼함)한 느낌을 일컬음.

29) 글씨가 두텁고 굳세면서 방정(方正: 반듯함)한 느낌을 일컬음.

30) 즉 초조대장경은 북송에서 수입된 대장경 본문을 임사(臨寫)하면서도 고려 특유(特有)의 서법(書法)으로 목판 판각용 정서본(淨書本)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성(精誠)을 다하여 판각(板刻)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1년에 출판된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란 책에서 '고려대장경은 짝퉁이다'라 하여 잠시 화제가 되어, 그 글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있었다. 우리의 귀중한 <세계기록유산>에 대하여, 책을 발간하면서 단지 인기나 주목을 끌기 위한 일회용 광고성 멘트로 함부로 취급하는 일은 이제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31)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99에 사용된 紙質은 7張과 11張이 두께와 색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조본 지질을 대상으로 세로 발근 폭과 가로발 축수를 測定한 결과 세로 발근 폭은 최소 3.0~3.5cm에서 최대 약 4.5cm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발축 數는 12축부터 23축까지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김기화, 이재영 2010, 111-112).

32) 이 자료와 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인 『瑜伽師地論』 卷8의 點吐와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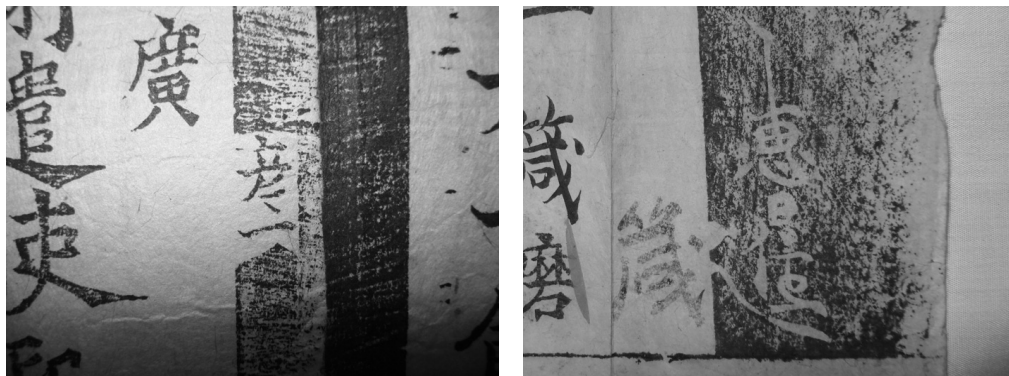
高麗末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대장경'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8) <사진 2>의 맨 오른쪽 하단에 '智賢(지현)'이라고 양각(陽刻)으로 새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초조대장경의 목판을 새긴 각수자(刻手者)의 이름, 즉 '각수(刻手)' 사항을 뜻한다. 이는 현대적 개념으로 이른바 실명제(實名製)를 11세기 당시부터 채택함으로써, 초조대장경의 목판을 새기는 각수의 간절한 마음과 그 정성(精誠)을 모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대장경을 판각(板刻)하였음을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초조대장경에서 이와 같은 '각수명(刻手名)'은 판수제(板首題) 하단(下段) 변란(邊欄)의 바깥쪽에 기록되어 있다.³³⁾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의 초조대장경 『大般若經(대반야경)』 중에는 장송사 소장본(長松寺本)에서

각수 59명, 안국사 소장본(安國寺本)에서 각수 21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 소재하는 남선사(南禪寺) 소장 초조대장경에서 '彦一'·'惠得'(<사진 5> 참조) 등 36명 정도의 각수자의 이름(刻手名)을 확인할 수 있다(김기화, 이재영 2010, 118-120).

9) 위 다섯째 사항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초조본)에서 그 광고(匡高)와 지폭(紙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초조대장경을 판각한 각각의 목판이 세월(歲月)을 경과하면서, 각 목판의 재질(材質)에 따라 수축(收縮)되는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특징이라 하겠다. 즉 <사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석장의 사진 내(內)에서 서로 연결되는 장(張: 丈)의 목판에서 인쇄한 인쇄면의 그 좌우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³⁴⁾

<사진 5> 刻手名: 左; 『高僧傳』卷2, 29丈: 彦一. 右; 『阿毗曇毗婆沙論』: 惠得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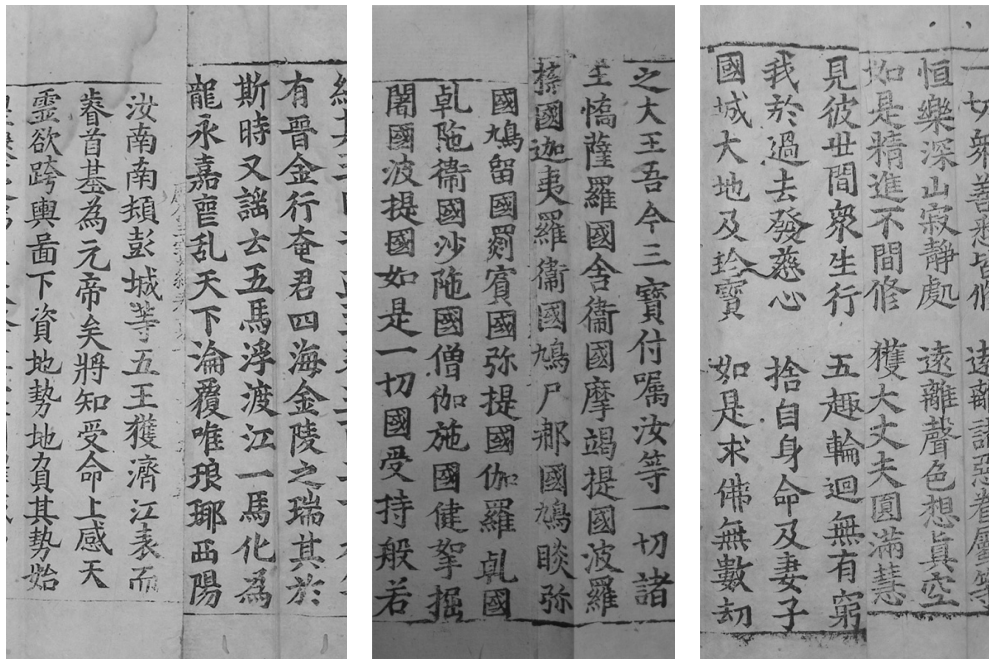
33) 刻手名은 대부분 陽刻으로 새기지만 간혹 陰刻으로 새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보통 두 字로 刻手名을表記하고 있다.

34) 게다가 이들 목판은 초조대장경의 각판이 완료(1087)되고 팔공산 부인사에 보존되다가 몽고의 침략으로 인하여 1232년에 소실(燒失)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목판에서 인쇄된 하한년도는 1232년 이전이라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초조대장경판(목판)이 완성된지 200년 이내인 12세기말에 인쇄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그 인쇄면의 차이가 이와 같음.

35) 사진 출처: (김기화, 이재영, 121).

〈사진 6〉 고려 초조대장경 목판 수축에 따른 인본(印本) 인쇄크기의 차이: 木板 크기의 차이³⁶⁾

左: 『歷代三寶記』卷7, 1~2丈. 中: 『說仁王般若波羅蜜經』卷下 14~15丈. 右: 『佛說護國尊者所問大乘經』卷2, 1~2丈



〈표 1〉 초조대장경의 피휘자 관련 사항

宋太祖와 관계	諱	兼避字
曾祖父	趙玄朗	弦, 眩, 畜, 浪, 恨, 狼
祖父	趙敬	儼, 警, 驚, 擎, 竟, 境, 鏡, 競
父	趙弘殷	弘, 泓, 絰, 殷
宋太祖	趙匡胤	恆, 涯, 匪, 勵, 筐

10) 초조대장경 중 일본 남선사대장경의 초조 본에서는 송제(宋帝)의 피휘결획(避諱缺劃)이 나타나고 있다. 피휘는 송제군주(宋帝君主)의 이름을 피하는 국휘(國諱)로 피할 글자의 한 획(劃), 또는 마지막 획을 긋지 않는 결획(缺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조대장경 중에서 송본

(宋本)의 본문에 의거 판각한 것이라면, 송제(宋帝)의 휘자(諱字)는 물론 겸피휘자(兼避諱字)에 있어서 결획(缺劃)이 나타나고 있다. 송본계의 국휘를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초조본에서 볼 수 있는 피휘는 ‘竟, 敬, 境, 鏡, 驚, 競, 弘, 殷’ 字 등이 있는데, ‘竟’ 등의

36) 사진 출처: (김기화, 이재영,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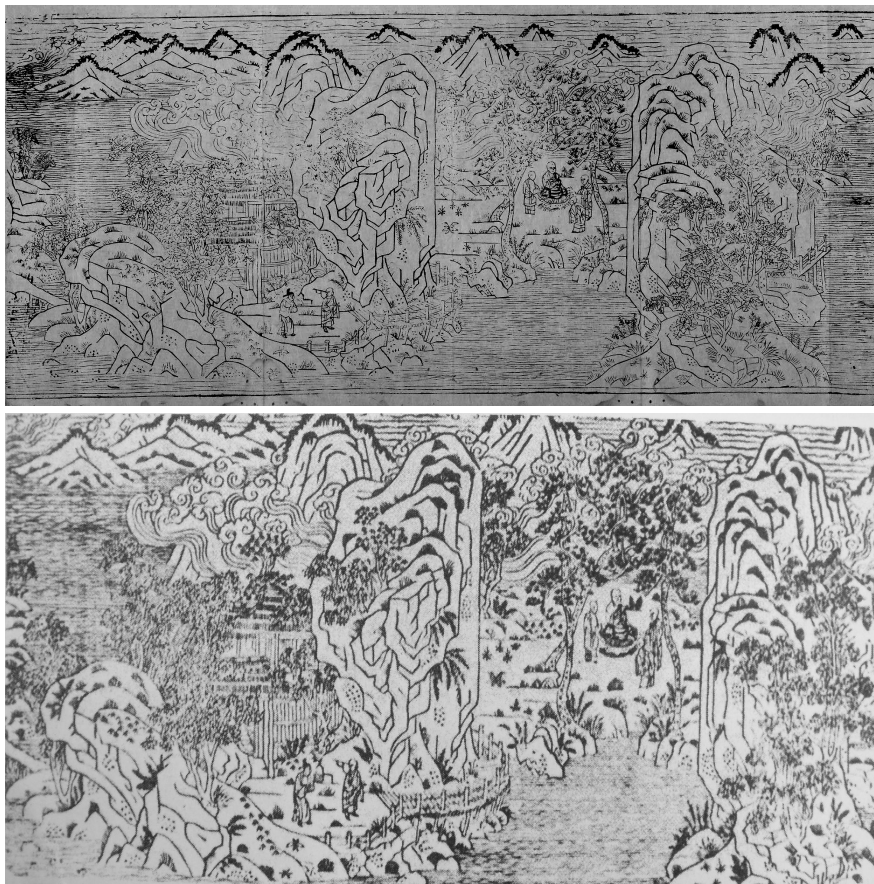
마지막 빠침이 결획(缺劃)으로 나타난다. 송본 본문에 의한 피휘결획은 초조본에서 재조대장경의 재조본(再雕本)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재조본에서는 피휘결획이 초조본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로써, 『藥師經』과 『續高僧傳』卷23 및 卷

26에서 나타나는 ‘竟’·‘敬’·‘鏡’자로 피휘결획이 재조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³⁷⁾

11)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어제비장전』 중 그 변상도(變相圖: 판화)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어제비장전』 권13'이

〈사진 7〉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어제비장전』 삽화(사진 上)와
미국 하버드대학 소장 북송본 『어제비장전』 삽화(사진 下)의 비교³⁸⁾



37)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재조본을 조성할 때 송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란본이나 다른 판본(版本)에 의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거란본에서 宋의 피휘를 한 예나 다른 版本의 경우는 그 저본을 찾은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김기화, 이재영, 122-124 참조).

38) 사진 출처: (석혜영, 이재구, 159).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북송본(北宋本)의 개판본(改版本)을 1108년에 후쇄(後刷)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하버드대학 소장 북송본 『어제비장전』 삽화와 남선사 소장본 초조대장경 소재(所載) 『어제비장전』의 삽화 중 동일한 내용의 그림 하나만을 서로 비교하면 <사진 7>과 같다.

<사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초조본은 북송본에 비하여 훨씬 세련되고 상세하며 인물(人物)이나 산천초목(山川草木) 및 구름 문양(雲紋)과 건물 등의 묘사가 더욱 정치(精緻)하면서도 정밀(精密)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송본을 바탕(底本)으로 하였으면서도 더욱 세심(細心)한 정성(精誠)과 열의를 다하여 그림을 조성하였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로보아 초조대장경은 개보장을 그냥 단순하게 번각(飜刻)하거나 복각(復刻)하는 수준이 아니라 는 점이다. 이와 같이 초조대장경은 변상도의 그림 하나에도 송본(宋本)을 뛰어넘는 판각의 예술성(藝術性)과 탁월성(卓越性)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초조대장경 내용의 분석

4.1 초조대장경의 편입 및 구성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고려 초조대장경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사항의 불전(佛典)들이 편입(編入)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종래 삼국시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의 필사본(筆寫本)·권자본(卷子本)·단본(單本) 등 11세기 초까지 고려에 지속적으로 전해진 각 불전(佛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鄉本(향본)’ 또는 ‘國本(국본)’⁴⁰⁾이라 일컫는다.

둘째, 10세기말 북송(北宋)으로부터 전래된 ‘宋本(송본)’이라 일컬어지는 개보칙판대장경(개보장)이 수입되었다. 즉

991년(高麗 成宗10年, 中國 淳化2年)에 송나라에 파견되었던 한언공(韓彦恭)이 송나라 황제에게 대장경을 청(請)하자, 황제는 인성대장경(印成大藏經: 개보장) ‘481함(函)’을 주었는데, 모두(凡) ‘2500권[5200여권]’⁴¹⁾이나 되었다. 이와 함께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및 『소요영(逍遙詠)』·『련화심륜(蓮花心輪)』 등도 선물하여, 이들을 가지고 귀국하였다.⁴²⁾

39) Loehr Max는 하버드대학교에 所藏된 이 北宋本 御製秘藏詮 권13과 南禪寺에 所藏된 高麗本 御製秘藏詮 권13에 관해 주목하고 唐·五代末 화가들의 회화작품과 비장전 목판화를 함께 고찰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 책에서 Loehr Max는 현전하는 북송본 『어제비장전』 권13이 版畫를 포함하여 開寶勅板大藏經이 만들어질 당시(984~991년 사이)에 板刻되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인출된 시기는 1108년(혹은 1127년)인 것으로 밝혔다(Loehr Max 1968, 34).

40) 여기에서 지칭하는 ‘鄉本’, ‘國本’, ‘宋本’, ‘丹本’ 등의 명칭은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조 당시 그 교정을 담당하였던 수기법사(守其法師)가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에서 지칭한 명칭임. 여기서는 ‘國本’을 다시 ‘國前本(국전본)’과 ‘國後本(국후본)’으로 구별한 사례도 보인다.

41) 『개보칙판대장경』의 규모는 ‘1016部, 480帙(函), 5048卷’에 이른다. 한언공이 宋으로부터 가지고 온 대장경은 ‘481

라는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1012년경부터 시작된 현종(顯宗) 시대에 조조된 초조대장경에는 이러한 개보장이 모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종 시대에 이루어진 초조대장경은 위 '향본(鄉本)'과 개보장을 바탕으로 조조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란은 1010년 겨울에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현종과 그의 신하들은 1011년 2월 15일에 청주 행궁(淸州行宮)에서 연등회(燃燈會)를 개최하면서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발원(發願)하자 거란의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으므로,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과의 전쟁(兵)을 진압(鎮)한 대장경', 즉 “鎮

兵大藏經(진병대장경)”이라고 고려시대부터 이미 지칭되었음을 제2장에서 논술하였다. 이와 같은 거란은 고려를 침략한 군사를 돌려서 귀환한 후, 거란 또한 대장경을 조조할 것을 염두에 두다가, 1021년(거란 聖宗 元年)에 송나라로부터 개보장을 수입하고, 거란의 남경(南京: 지금의 北京)에서 거란대장경을 판각하기 시작하여 1053년(重熙 22: 高麗 文宗 7年) 1차로 완성하였고, 그 후 새로 발견되거나 번역된 것을 계속 입장(入藏)하였다.⁴³⁾ 거란은 그들의 고유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장과 같이 (거란)대장경을 漢字로 조조하였고, '1行 14字'의 개보장과는 달리 '1行 17字'本으로 이루어진 대장경의 규모는 '5,048卷 579帙'에

함, 2500권'이라 하여, 그 函數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2500권'이라 기록된 부분은 그 전사(轉寫)의 과정에서 '5200권'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고려의 대장경은 천자문순(千字文順)의특정 함차명(函次名)을 부여할 때 일반적으로 '10권의 권자본'을 하나의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언공이 송나라 황제에게 대장경을 청(請)하자, 송의 황제는 인성대장경 뿐 아니라 『어제비장전』 등도 하사(下賜: 선물)한 것으로 보아, 인성대장경 '5048권' 전부와 그밖에 『어제비장전』을 비롯한 당시 송나라를 대표할만한 불전(印成佛典)들 200여권도 덩으로 선물하였을 것이므로, 도합 '5200권'일 개연성(蓋然性)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려사』에 기록된 '二千五百卷'은 그 전사(轉寫) 과정에서 '五千二百卷' 또는 '五千餘卷'의 오기(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 ① 『高麗史』 제93권 列傳 제6, 韓彥恭條.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 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 逍遙蓮花心輪 還(한언공은 성품이 명민하고 학문을 즐겼다. ... 송나라에 사은사(謝恩使)로 갔었는데 송나라에서는 한언공의 태도와 행동이 법도에 맞았으므로 금자 광록 대부(金紫光祿大夫), 검교(檢校) 병부상서, 겸 여사대부의 벼슬을 주었다. 한언공이 황제에게 대장경을 줄 것을 청하였더니 황제는 대장경 481함(函)을 주었는데 대략 2천5백 권이나 되었다. 또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소요(逍遙), 연화심륜(蓮花心輪)을 주어서, 모두 가지고 귀국하였다).”

② 『高麗史』 제3권 世家 제3, 成宗10年 4月條. “夏四月 庚寅 韓彥恭還自宋獻大藏經 王迎入內殿邀僧開讀下教敕(여름 4월 경인(庚寅)일에 한언공(韓彥恭)이 송(宋)나라로부터 돌아와 [성종 임금께] 대장경(大藏經)을 올렸다. 왕이 내전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승려를 초청하여 대장경을 읽게 하고, 또 교서를 내리어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③ 『宋史』, 〈高麗傳〉. “淳化二年 遣使韓彥恭來貢 彥貢表述治 意求印佛經 詔以藏經並御製秘藏詮·逍遙詠·蓮華心輪賜之.”

43) 특히 거란대장경은 그 함차(函次)의 배열에 있어서 『개원석교록』에 의거한 개보장과는 달리, 石晉(後晉)의 可洪이 찬술한 『新集藏經音義隨函錄』에 의거하였다. 거란대장경은 송의 불교와는 달리 전혀 그 계통을 달리하는 중국 北地의 불교에 기초를 두면서 정확하고 건실한 학풍을 쌓아올린 거란 學僧들이 고심을 기울여 조성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거란대장경에는 중국에서 일찍 산실(散失)된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一切經音義』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점(안계현, 1981, 대장경의 조판, 『한국사』 6(서울: 국사편찬위원회), 31.)에서 거란대장경은 개보장과 그 내용상으로 다른 대장경으로 추정된다(최연주, 2009, 초조대장경의 성립 배경과 성격,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한국중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학술회의: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2009. 9. 11(금) 13:00-18:00), 10).

이른다. 그 완성된 시점은 1068년(咸雍 8년: 고려 문종 22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김영미 2002, 52-53). 왜냐하면, 1072년 12월에 고려 문종 임금에게 보내온 '佛經一藏'이 거란대장경의 완성본일 것(최연주 2009, 10)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려 문종시대에 조성된 초조대장경은 바로 이와 같은 거란대장경을 참조하여 조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⁴⁾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조 때에 그 교감을 담당하였던 수기(守其)는 이와 같은 거란대장경의 인본(印本)을 '丹本(란본)'이라 지칭하고 있다.

넷째, 초조대장경에는 『개원석교록』 편찬 이후에 송조(宋朝)에서 새로 번역된 '송신역경론(宋新譯經論)'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고려사』 제9권 世家 제9'에 의하면, 문종 37년(1083: 文宗 末年) 3월 기축(己丑)일에, “왕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송(宋)나라에서 보내온 대장경(大藏經)을 접수하여 개국사(開國寺)에 보관하도록 하고 겸하여 도량을 베풀었다”⁴⁵⁾는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런데 선종(宣宗: 1084-1094) 당시의 대장경 완성과 그 경찬(經讚) 사항을 보면, '선종 4년(1087), 왕은 2월에 개국사에 행차하여 대장경이 이룩되었음을 경찬하였고, 3월에는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하여 대장전(大藏殿)이 조성되었

음을 경축하였으며, 4월에는 귀법사(歸法寺)에 행차하여 대장경이 이룩되었음을 경찬하였다⁴⁶⁾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초조대장경 판각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83년에 중국(宋)으로부터 수입된 대장경이 이 때(1087)에 그 조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논술과 관련하여,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에는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教目錄: 30권)』⁴⁷⁾이 간행(雕造)된 것으로 보아, 이로써 『정원신정석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불전들도 초조대장경에 편입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83년에 수입된 송신역경론들도 물론 초조대장경에 입장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고려 초조대장경의 편성(編成)에는 위와 같이 종래 고려에 전해 내려오는 신라시대부터의 사성(寫成)된 불전(佛典) 즉 '향본(鄉本)' 및 '국본(國本)'을 비롯하여 '송본(宋本)'과 '란본(丹本)' 뿐만 아니라 '송신역경론'도 포함되어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은 현종(顯宗)시대에는 개보장이 주로 조조되었고, 문종(文宗) 재위기간 중에는 거란대장경을 참조한 대장경의 조조(雕造)가 이루어졌으며, 선종(宣宗) 4년(1087)까지 1083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송신역불전' 등도 모두 조조·간행됨으로써 초조대장경이 완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4) 왜냐하면,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제종교장조인소(諸宗教藏雕印疏)>에서 “현조(顯祖: 顯宗)께서는 오천축(五千軸)의 비장(秘藏)을 새겨 내셨고, 문고(文考: 文宗)께서는 십만송(十萬頌: ‘千萬頌’의 ‘千’은 ‘十’의 誤記로 보임)의 계경(契經)을 새겨 내셨다”라 하였다. 즉 현종 때 새긴 ‘오천축의 비장’은 개보장을 말하는 것이요, 문종 때 새긴 ‘십만송의 계경’이 곧 거란대장경을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45) 『高麗史』 第9卷, 世家 第9. 文宗 三十七年條. “三月 己丑, 命太子迎宋朝大藏經置于開國寺仍設道場.”

46) 『高麗史』 第10卷, 世家 第10. 宣宗 四年條. “二月, 甲午 幸開國寺慶成大藏經. … 三月, 丙辰 幸龜山寺飯僧. 己未 王如興王寺慶成大藏殿. … 夏四月, 庚子 幸歸法寺慶成大藏經.”

47)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 『정원신정석교목록』 중에는 '卷1, 10, 12-15, 18, 20-23, 30'이 남아 있다(남권희 2010, 226).

4.2 초조대장경 편성의 특징

초조대장경 편성의 특징 중에서 크게 주목되는 사항만을 간추려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⁴⁸⁾

첫째, 초조대장경 편성 중에서 최대의 특징은 『화엄경(華嚴經：大方廣佛華嚴經)』⁴⁹⁾ 중에서 '50권본 『화엄경』'과 '80권본 『화엄경』' 2종을 편입(編入)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 재조대장경에는 '60권본 『화엄경』'⁵⁰⁾과 '80권본 『화엄경』'⁵¹⁾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조대장경과 다른 점이다.

종래 국내 학자 중 일부는 『화엄경』 중 '진본(眞本：舊譯本)은 60권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도 있었다(천혜봉 2011, 235).⁵²⁾ 그래서 '예컨대 한국에서는 『50화엄』을 『60화엄』의 破紙本(파지본)으로 오판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당하기도 하였다(이승재 2006, 2). 그러나 실제로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의하면, 『60화엄』은 원래 50권본으로 초출(初出：불타발타라가 418-420년에 한역(漢譯)한 첫 번째 번역본)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즉 『개원석교록』 권제3'에서 소자(小字)의 해제(解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60화엄』은 후대(後代)의 사람(後人)이 분권(分卷)하여 나눈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50화엄』과 『60화엄』의 본문(本文)은 동일하다.⁵⁴⁾ 게다가 국내 〈호림박물관〉⁵⁵⁾과 일본 〈남선사〉 소

48) 일본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에 관한 남권희 교수 조사연구팀의 형태서지학적인 조사가 5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가 2010년 1월에 비로소 끝났고, 이 초조대장경 형태서지 조사의 결과가 그 일부만 2010년 6월에 발간된 『古印刷文化』 제17집'에 수록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에 수록된 모든 불전의 편입(編入) 내용에 관한 분석 등 주제서지학 내지 체계서지학적인 연구는 지금부터 겨우 시작할 수 있는 출발 단계에 서 있는 상황이다. 초조대장경에 관한 목록학(目錄學)적인 연구 등, 초조대장경의 구성 및 각 불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諸般) 연구는 차후 제목을 달리하는 여러 논고에서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을 여기에 미리 밝혀 놓는다.

49)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한역본(漢譯本)으로는, 권수(卷數)에 따라, ①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과 ②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 ③반야(般若)가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60화엄』에는 34품(品), 『80화엄』에는 39품이 들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40화엄』은 60권본과 80권본의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화엄경』의 완역(完譯)본은 아니다. 이 『40화엄』은 『60화엄』과 『80화엄』에 공통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입법계품(入法界品)'만을 번역한 것인데, 8세기 말엽인 정원(貞元)년간에 漢譯된 것이므로 가장 늦게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 재조대장경에 편입된 『60화엄』은 중국 동진(東晉) 시대 불타발타라(唐名：覺賢)가 418-420년에 번역한 『50화엄』을 중국에서 後代에 分卷하여 이루어진 '60권본 『화엄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眞本(진본)' 또는 '舊譯本(구역본)'이라고도 일컬어진다.

51) 중국 당(唐) 시대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국호를 '大周(대주)'로 바꾸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실차난타에 의하여 695-699년에 번역되었다 하여 '周本(주본)'으로 일컬어지며, '80권본 『화엄경』'으로 새로 번역되었다 하여 '新譯本(신역본)'이라고도 지칭된다.

『80화엄』에서는 華嚴經(화엄경)을 '花嚴經'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唐(당)의 국호를 '大周'로 변경한 則天武后의 부명(父名)이 '武士華'였기 때문에 諱避(避諱)법의 일종으로 그 서명(書名)을 개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2) "초조본(초조대장경)의 진본(眞本)이라면 으레 60권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그 본문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지 못하였다."

53) 『開元釋教錄』 卷第三, 『大正新修大藏經』 제55권 (東京：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1977), 505,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初出元五十卷 後人分爲六十 沙門支法領從于闐得梵本來 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出 元熙二年(420)六月十日訖 法業筆受 見祖祐二錄."

장 초조대장경 중에 '50권본 『화엄경』'의 각 권이 다수 조사된 점으로 보아, 초조대장경에는 '60권본 『화엄경』'이 아닌 '50권본 『화엄경』'이 편입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른바 북송본(北宋本) 이전의 대부분의 『화엄경』이 50권본이었음에, 초조대장경에는 불타발타라가 5세기 초에 번역한 '50권본 『화엄경』'을 입장시켰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남권회 교수 조사연구팀'에서 이루어진 『일본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초조대장경 속에는 현존하는 중국 최고(最古)의 불전목록인 양(梁)나라(502-557) 시대 僧祐(승우)가 찬술한 『出三藏記集』(출삼장기집: 15권),⁵⁶⁾을 비롯하여 수(隋: 581-618) 시대 法經(법경) 등이 찬술한 『衆經目錄』(중경목록: 7권), 費長房(비장방)의 『歷代三寶記』(역대삼보기: 15권), 唐(당)나라 시대에 靜泰(정태)가 찬술한 『중경목록』(衆經目錄: 5권),⁵⁷⁾ 664년에 道宣(도선)이 찬술한 『大唐內典錄』(대당내전록: 10권) 및 『續大唐內典錄』(속대당내전록: 1권), 당 태종(太宗) 정관년간(626-649)에 靖邁(정매)가 찬술한 『古今譯經圖記』(고금역경도기: 4권),⁵⁸⁾ 당 현종(玄宗: 712-756) 때 智昇(지승)이 찬술한

『續古今譯經圖記』(속고금역경도기: 1권),⁵⁹⁾ 695년에 明佺(명전) 등이 찬술한 『大周刊定衆經目錄』(대주간정중경목록: 15권), 730년에 智昇(지승)이 찬술한 『開元釋教錄』(개원석교록: 20권) 등 8세기 전반기까지 찬술되었던 중국의 역대 불전목록 10종(種)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또한 초조대장경 편성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⁵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보장은 『개원석교록』의 '입장록(入藏錄)'에서 정했던 1,076부 5,048권에 맞춘 것이다(이병욱 2011, 171). 즉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송본(宋本: 개보칙판대장경)에는 『개원석교록』을 비롯한 위 9종(種)의 목록에 수록된 불전들을 목판대장경으로 조조(雕造)·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에는 800년에 圓照(원조)가 찬술한 『貞元新定釋教目錄』(정원신정석교목록: 30권)이 더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남권회 2010, 226).

이와 같이 중국의 역대에 걸친 모든 불전목록이 초조대장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입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意味)하고 있는 것인가?

앞의 장(章) 넷째 사항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의 각 불전 말미(末尾)에는 '간

54) 천혜봉 교수는 근자의 글(천혜봉 2011, 235)에서 『50화엄』에 대하여 "... 50권으로 엮은 것이 진본(眞本)의 초역(初譯)이며, 그 뒤 이를 교정 증보한 것이 60권의 진본(眞本)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오판(誤判)한 것이다. 『60화엄』은 『50화엄』을 증보한 것이 아니다. 그 본문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승재 교수는 『50권본 『화엄경』 연구』에서 『50화엄』과 『60화엄』의 本文 및 異體字 등을 일일이 비교하고, 그 編卷도 비교한 결과, '北宋本' 이전의 '眞本 『華嚴經』'은 대부분이 『50화엄』에 속하였고, 『50화엄』과 『60화엄』은 그 본문이 동일한 '同本同譯'임을 증명한 바 있다(이승재, 2006, 『50권본 『화엄경』 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35-137).

55)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의 『화엄경』 권제1, 권제37, 권제47, 권제48'은 모두 『50화엄』에 속한다.

56) 『출삼장기집』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경전 목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장 신뢰할만한 참고서라는 주장도 있다(이병욱 2011, 162).

57) 靜泰의 『중경목록』 5권'은 隋나라 彥棕(연중)이 찬한 『중경목록』 5권'을 증보한 것임.

58) 현장이 경전을 번역한 <변경원>의 도기(圖記: 그림에 기록된 내용)임.

59) 이에 관한 상세한 '책수(冊數), 권수(卷數), 합차(函次)' 등의 세부 사항은, (남권회 2010, 255) 참조 요.

기(刊記) 사항'이 새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고려 현종(顯宗: 1009-1031) 당시에 고려에서 '대장경의 각판(刻板)을 하늘에 기고(祈告: 1011년 2월 15일, 淸州行宮에서의 盟誓)'한 이후 초조대장경 판각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송본(宋本: 개보직판대장경)을 보완(補完)하여 장기적이고 지속(持續)적으로 대장경을 조조·간행하겠다는 의지(意志)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문종(文宗: 1046-1083) 시대에 수입된 거란대장경(丹本)을 초조대장경에 편입(編入)·보속(補續)하였으며, 여기에 중국에서 800년에 찬술된 『정원신정석교목록』에 수록된 불전도 또한 초조대장경에 추가로 편입되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1087년(宣宗 4)에 완성된 초조대장경에는 1083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송신역불전' 중 새롭고 우수한 불전은 모두 편입·조조되었을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려 초조대장경은 북송본 뿐만 아니라 11세기 말기까지 동아시아에서 한역(漢譯)된 모든 대장경 및 불전(佛典)들에 대하여 중국 역대의 불전목록들을 철저히 참조함으로써 초조대장경에 광범위하게 포용하려는 포괄성(包括性)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고려 문종시대에는 한국불교사(韓國佛教史)에서 교학(敎學)에 가장 정통(精通)했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바라보는 초조대장경에 관한 명석(明皙)한 관점(觀點)을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며 선종과 속종의 동생이기도 한 왕자였다. 거란대장경 인본을 수입하여 초조대장경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완해 나가는 시점에서, 의천은 고려 『제종교장(諸宗教藏)』을 조조(雕造)하려는 집념을 불태우면서⁶⁰⁾ 또한 초조대장경 조조의 국가적인 마무리(1087)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의천의 할아버지(祖父)였던 현종과 그의 아버지(父)였던 문종 및 의천의 형(兄)이었던 선종의 시대를 3대(代) 이상에 걸쳐 이어 오면서 이룩되는 초조대장경의 3차에 걸친 조조 사업 중, 문종 때 이루어지는 거란대장경 인본의 편입 사업부터 의천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의천은 일찍부터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중국 역대의 불전목록들을 독파(讀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불경(佛經)이 최초로 한역(漢譯: 서기 67년 『42장경』 번역)되기 시작한 일부터 당나라 정관(貞觀: 626-649)년간에 경론(經論)들이 크게 갖추어진 사항 및 『개원석교록』 20권이 가장 정요(精要)한 불전목록임을 이미 통찰(洞察)하고 있었다.⁶¹⁾ 또한 『정원신정석교목록』 소수(所收)의 불전들과 거란대장경의 내용 및 1083년 당시까지 수입된 송신역경전 등의 정수(精髓)를 이루는 불전들은 반드시 의천(義天) 등 당시 고려의 불교학자들에 의하여 철저한 검증(檢證) 절차를 거쳐 초조대장경에 편입되었을 것임으로써,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불전 내용의 탁월성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60) ① 義天 1073, “代世子集敎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 권14. 참조 요.

② 義天,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권15. 참조 요.

61)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序文,” 『大覺國師文集』 권1. 참조 요.

요컨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려에서는 1087년에 초조대장경 조조사업이 완결(完結)되고, 1090년에는 고려 <제종교장>의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이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과 제종교장이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대(同時代)에 완성됨으로써 고려는 11세기 후기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最高)의 문화국가(文化國家)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 초조대장경 편성(編成)의 상세한 내용 등은 향후 더욱 심도(深度)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초조대장경이 전쟁(兵)을 집압(鎮)한 대장경, 즉 진병(鎭兵)대장경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조대장경 조조(雕造) 발원(發願)의 장소와 그 일자를 규명한 바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 조조의 발원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1011년 2월 15일에 청주행궁(淸州行宮)에서 개최된 연등회(燃燈會)에서 이루어졌음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은 '외침(外侵)의 극복'에 대한 표상(表象)이 됨으로써 13세기의 몽고의 침략 때에도 초조대장경의 판각에 사상적(思想的) 기저(基底)를 제공한 사례(史例)가 되었다. 따라서 고려 초조대장경은 거란과의 전쟁을 진압하면서

문화적 자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에서 조조(雕造)된 세계적인 기록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에서는 초조대장경 판본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 1)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은 권자본(卷子本)으로 간행되었으며, 권말(卷末)에 간기(刊記) 사항을 두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고려 현종(顯宗) 당시에 초조대장경 각판(刻板)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이후 보유판(補遺板)을 계속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염두에 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2) 초조본은 광고(匡高) 22cm 정도의 상하변란(上下邊欄)을 새기고 그 판면에는 계선을 아예 새기지 않은(無界)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초조대장경의 판각서법(板刻書法)은, 각 글자의 획(劃)이 비교적 두텁고 굳세면서도 반듯한 느낌을 주어서 그 필획(筆劃)에서의 박력(迫力)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아름다운 미적(美的) 감각이 충만(充滿)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보칙판대장경(복송본)의 서법은 그 판각에서 각 글자의 획이 가늘고 야무진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 초조대장경은 개보칙판대장경의 인쇄본을 단순히 번각(飜刻)하거나 복각(復刻)한 것이 아니고, 독창적(獨創的)인 판본임을 입증할 수 있다.
- 3) 초조본 각 권수제(卷首題)의 우측 하단 변란 바깥에서 116명 이상의 각수(刻手)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수자의 실명(實名)을 판각되어 있다는 것은 초조대

장경을 판각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판각하였기 때문에 초조대장경 판각의 탁월성(卓越性)과 예술성(藝術性)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 4) 초조본의 각 권자본에서 각 판본의 광고(匡高)와 지폭(紙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장경을 판각한 각각의 목판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그 수축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 5) 초조대장경에 포함된 『어제비장전』의 판화와 하버드대학 소장 북송본 『어제비장전』의 판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의 초조본은 북송본에 비하여 훨씬 세련되고 상세하며 인물(人物)이나 산천초목(山川草木) 및 구름문양(雲紋)과 건물 등의 묘사가 더욱 정지(精緻)하면서도 정밀(精密)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초조대장경은 개보장을 그냥 단순히 번각(飜刻)하거나 복각(復刻)한 것이 아님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은 변상도의 그림 하나에도 송본(宋本)을 뛰어넘는 판각의 예술성(藝術性)과 탁월성(卓越性)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제4장에서는 초조대장경의 편입 구성 및 편성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 1) 초조대장경은 1012년부터 1087년까지 대략 3차에 걸쳐 지속적(持續的)으로 완성된 대장경으로, ① 삼국시대부터 11세기

典) 즉 향본(鄕本), ② 10세기말 북송(北宋)으로부터 전래된 개보칙판대장경(開寶藏)의 인본(印本), ③ 문종시대에 수입된 거란대장경의 인본(印本), ④ 1083년 송(宋)에서 들어온 송신역경론(宋新譯經論) 등이 포괄적으로 편입되어 구성된 대장경임을 알 수 있었다.

- 2) 초조대장경에는 '50권본 『화엄경』(『50화엄』)'을 편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50화엄』은 5세기초에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최초의 원형(原型)을 유지하고 있는 화엄경이다. 반면에, 고려 재조대장경에서는 『60화엄』을 편입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 특징이기도 하다.
- 3) 초조대장경에는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을 비롯한 11종 이상의 중국 역대의 불전목록(佛典目錄) 중에서 그 당시까지 중국과 고려에 전래되었던 모든 불전목록(대장경목록)을 총괄하여 편입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1세기 후기(後期) 불세출(不世出)의 불교학자인 대각국사 의천 등이 문종(1046-1083) 시대 이후 편성된 초조대장경의 편입과정에서 개개 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을 방증(傍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고려 초조대장경은 첫째, 그 목판 판각에 있어서 개보칙판대장경의 인쇄본을 단순히 복각(復刻)한 것이 아닌 이른바 독창적이고 탁월한 예술성(藝術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조대장경의 편성에는 중국

역대의 모든 불전목록을 빠짐없이 편입한 것으로 보아, 문종시대 이후의 초조대장경의 편성에는 개개 불전 또한 목록학적(目錄學的)인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대장경에 편입시켰을 것

이라는 점에서 보면, 포괄성(包括性)과 누적성(累積性)을 지닌 체계서지학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참 고 문 헌

- [1] 開元釋教錄, 『大正新修大藏經』, 제55권,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1977.
- [2] 『高麗史』.
- [3] 『高麗史節要』.
- [4] 김기화, 이재영. 2010. 南禪寺 所藏 初雕大藏經의 形態的 特徵. 『古印刷文化』, 17: 91-132.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 [5] 김두중.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 [6] 김성수. 2006. 고려 초조대장경 분류체계 및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405-428.
- [7] 김성수. 2010. 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 『佛敎研究』, 32: 133-165.
- [8] 김성수. 2011.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75-98.
- [9] 김영미. 2002. 11세기 후반 - 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43: 47-77.
- [10] 金潤坤.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 [11] 남권희. 2010. 『日本 南禪寺 所藏 高麗 初雕大藏經 調査報告書』.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 [12] 文暲鉉. 1991.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李箕永博士 古稀紀念論叢) 佛敎와 歷史』, 489-529.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 [13] 민현구. 1978. 고려의 대몽항쟁과 대장경. 『한국학논총』, 1: 39-54.
- [14] 석혜영, 이재구. 2010. 南禪寺 所藏 『御製秘藏鈔』 研究. 『古印刷文化』, 17: 133-174.
- [15] 『宋史』. 〈高麗傳〉.
- [16]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 [17] 안계현. 1975. 대장경의 조판. 『한국사』, 제6권: 19-6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18] 우진웅, 임기영. 2010.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과 고려본 현황. 『古印刷文化』, 17: 47-90.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 [19]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序文. 『大覺國師文集』 卷1.

- [20] 義天. 諸宗教藏雕印疏. 『大覺國師文集』 卷14.
- [21] 義天.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15.
- [22]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丁酉(1237)年行). 『東國李相國集』 第25卷. 雜著. 18-20(張).
- [23] 이기영. 1976. 고려대장경 그 역사와 의의. 『高麗大藏經』, 제48권: 1-17.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 [24] 이승재. 2006. 『50권본 『화엄경』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25] 이병욱. 2011. 중국역경사. 『역경학 개론』, 129-180. 서울: 운주사.
- [26] 장애순 외. 2006. 고려대장경의 편찬 배경. 『고려대장경의 연구』, 19-58.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27] 정재영. 2010. 南禪寺 所藏 高麗 初雕大藏經의 角筆資料에 대하여. 『고인쇄문화』, 17: 365-404.
- [28] 천혜봉. 2011. 초조대장경.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221-244. 서울: 정보문화재단.
- [29]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고인쇄문화』, 제17집.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 [30] 최종남 외. 2011.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서울: 운주사.
- [31] 최연주. 2009. 符仁寺藏 高麗大藏經 조성과 체제. 『제1발표: 초조대장경의 성립 배경과 성격』, 1-11.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중세사학회 · 팔공산 부인사 공동학술회의』, 2009년 9월 11일. [대구]: 팔공산 부인사 삼광루.
- [32] 호림박물관. 2011.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정보문화재단.
- [33] Max, Loehr. 1968. Chinese Landscape Woodcuts. Boston: Harvard Universit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aewonseokgyolok. *Daejeongsinsu Daejanggyeong*. Vol.55. Tokyo: Daejeongsinsu Daejanggyeong Gangaenghoe, 1977.
- [2] *Goryeosa*.
- [3] *Goryeosajeolyo*.
- [4] Kim, Gi Hwa, & Lee, Jae Yeong. 2010. "Namseonsa sojang Chojo Daejanggyeongui hyeongtaejeok teugjing." *Goinswae Munhwa*, 17: 91-132.
- [5] Kim, Du-Jong. 1974. *Hanguk Goinswae Gisulsa*. Seoul: Tamgudang.
- [6] Kim, Sung-Soo. 2006. "The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s of Chojo Tripitaka Koreana and Chojo Print held by Horim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405-428.
- [7] Kim, Sung-Soo. 2010. "A research on the motives and background of making Goryeo-Daejanggyeong(Tripitaka Koreana)." *Bulgyo-yeongu*, 32: 133-136.
- [8] Kim, Sung-Soo. 2011. "A research on the place and date of praying for the engraving of the

-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75-98.
- [9] Kim, Young Mi. 2002. “The exchanges of Buddhist Sutras, and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yo and Yo dynasti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1th century and the early periods of the 12th century.”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43: 47-77.
- [10] Kim, Yoon Gon. 2002. *Goryeo Daejanggyeongui Saeroun Ihae*. Seoul: Bulgyo Sidaesa.
- [11] Nam, Kown-Heui. 2010. *A Research 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of the Nan-Zen Ji*.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 [12] Mun, Gyeong-hyeon. 1991. “Goryeo Daejanggyeong jojo-ui sajeok gochal.” *Bulgyowa Yeoksa: Yi Gi-yong Baksa Gohui Ginyeom Nonchong*, 477-530. Seoul: Korean Institute for Buddhist Study.
- [13] Min, Hyeon-gu. 1978. “Koryo’s anti-Mongolia struggles and laws and treaties.” *Theses of Korean Studies*, 1: 39-54.
- [14] Suk, Hye Yeong, & Lee, Jae Gu. 2010. “Namseonsa sojang Eojebijangjeon yeongu.” *Goinswae Munhwa*, 17: 133-174.
- [15] Songsa. *Goryeojeon*.
- [16] Sugi. *Goryeoguk Sinjo Daejanggyojeong Byollock*.
- [17] An, Gye-hyeon. 1975. “Daejang-gyeong-ui jopan.” *Hanguksa*, 6: 19-69.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18] Woo, Jin Ung, & Lim, Gi Yeong. 2010. “Namseonsa sojang Chojo Daejanggyeonggwa Goryeo bon hyeonhwang.” *Goinswae Munhwa*, 17: 47-90.
- [19] Uicheon. “Sinpyon jejong gyojang chongnok.” *Daegak Guksa Munjib*. Vol.1.
- [20] Uicheon. “Jejong gyojang joinso.” *Daegak Guksa Munjib*. Vol.14.
- [21] Uicheon. “Daeseonwang[Seonjong] jejonggyojang joinso.” *Daegak Guksa Munjib*. Vol.15.
- [22] Yi, Gyu-bo. “Daejanggakpan gunsin gigomun(Jeongyu(1237)year).” *Dongguk Isanggukjip*. Vol.25, Japjo 18-20.
- [23] Yi, Gi-yeong. 1976. “Goryeo Daejanggyeong, geu yeoksawa uiui.” *Goryeo Daejanggyeong*, 48: 1-17.
- [24] Lee, Seung Jae. 2006. *Fifty-volume Edition of the Avatamska-Sutr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25] Lee, Byeong Uk. 2011. “Jungguk yeokgyeongsa.” *Yeokgyeonghak Gaelon*, 129-180. Seoul: Unjusa.
- [26] Jang, Ae-sun. 2006. “Goryeo Daejanggyeongui pyeonchan baegyeong.” *Goryeo Daejanggyeongui*

- Yeongu, 19-58.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27] Jeong, Jae Yeong. 2010. "Namseonsa sojang Goryeo Chojo Daejanggyeongui gakpil jalyoe daehayeo." *Goinswae Munhwa*, 17: 365-404.
- [28] Cheon, Hye-Bong. 2011. "Chojo Daejanggyeong." *The First Tripitaka Special Exhibition*, 221-244. Seoul: Sungbo Cultural Foundation.
- [29]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2010. *Goinswae Munhwa*. Vol.17. Cheongju: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 [30] Choi, Jong Nam, et al. 2011. *Yeokgyeonghak Gaelon: Buljeonui Seonglibgwa Jeonseung*. Seoul: Unjusa.
- [31] Choe, Yeon-ju. 2009. "Buinsa jang Goryeo Daejanggyeong joseonggwa cheje." *Presentation 1: Chojo Daejanggyeongui Seonglib Baegyeonggwa Seonggyeok*, 1-11. *Goryeo Chojo Daejanggyeonggwa Buinsa: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and Palgongsan Joint Conference*, Sept. 11, 2009. [Daegu]: Palgongsan Buinsa Samgwangnu.
- [32] Horim Museum. 2011. *The First Tripitaka Special Exhibition*. Seoul: Sungbo Cultural Foundation.